

보도시점 2026. 6. 4.(목) 16:00 배포 2026. 6. 4.(목) 15:00

정부,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업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위한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6.4.(목) 인천공항에 소재한 한국면세점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면세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면세 산업은 최근 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 외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약화 등을 배경으로 최근 2-3년 간의 실적 부진을 벗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면세점*이 흑자 반전에 성공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면세점 등

참석자들은 최근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상 맞춤형 마케팅,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도입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에서 참석하였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 여행객 면세 한도 확대 △ 면세점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면세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책임자	과 장	최지훈 (044-215-4410)
		담당자	사무관	손민호 (xroze@korea.kr)